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PET필름 및 나일론필름 수급 동향

I. 서론

(사)한국포장협회는 PET필름 주요공급사인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주)화승케미칼을 대상으로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나일론필름 주요공급사인 효성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대상으로 나일론필름 생산수급 동향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II. PET필름 수급 동향

PET필름은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등이 우수한 필름으로 포장용, 광학용을 비롯한 전기전자용 및 각종 산업용 소재로 쓰이고 있다.

최근 국내 PET필름 시장은 내수 시장의 중요한 수요처인 전자제품업계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의 품질이 급격하게 개선되어 국내 시장의 수성에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내 PET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케미칼, 효성화학(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주)는 PET필름분야 세계 4위권 기업으로, 광학용 필름, 포장용 필름 및 친환경 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진천공장, 수원공장 등과 함께 미국, 중국 등에 PET필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11개 라인에서 연간 12만톤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3만톤 및 내수 6만 5,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나일론필름 수급 동향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1	120,000	30,000	65,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100,000	30,000	70,000
효성화학(주)	3	64,800	6,480	58,320
(주)화승케미칼	1	16,000	2,500	16,000

SKC는 최근 PET병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열수축 포장재인 ‘SKC 에코라벨’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SKC 에코라벨은 PET병과 동일한 소재와 재활용 공정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잉크를 적용하여, 재활용 공정에서 PET병과 라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 시 라벨을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재활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겸비한 제품으로, 최근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의 에코라벨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코라벨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적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코라벨의 신속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전자제품용 필름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디스플레이용 필름 생산을 주력으로 삼아 중국 시장 진출 및 확대를 통해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9개 라인에서 연간 10만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시장에 3만톤, 국내시장에 7만톤을 공급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최초로 재활용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해 친환경 소재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LG생활건강·롯데알미늄은 2020년 하반기부터 재활용 PET를 적용한 포장재 개발을 위한 협업에 나서 국내 최초로 PCR PET 필름을 개발했다. PCR PET 원료는 이제껏 압출 성형용 시트(Sheet)나 재생원사 생산에 적용하는데에 그쳤다. 반면 불순물이 없고 물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품질관리나 형태 가공

이 훨씬 까다로운 필름 생산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생활용품, 식품포장용, 산업용 등 PCR PET 필름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며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가겠다.”고 전했다.

효성화학(주)은 1997년 PET 필름 사업에 진출해 현재 울산 용연공장, 구미공장에서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3개 라인에서 6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에 5만 8,000톤, 해외에 6,500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광학용, 공정이형용, 윈도우용 등 고부가가치 필름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의 스페셜티 제품의 시장 리더로 도약해 가겠다.”고 전했다.

(주)화승케미칼은 1개 라인에서 1만 6,000톤의 PET필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시장에 1만 6,000톤, 해외시장에 2,500톤의 PET필름을 공급했다.

화승케미칼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수요 버블이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은 유지 및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각종 비용 상승으로 재고 활용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생산 및 재고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PET 필름업계가 친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며, 재활용 PET 등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필름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재생업체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포장협회 등 유관단체의 협조 등이 함께 모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II. 나일론 필름 수급 동향

나일론 필름은 충격강도, 내핀홀성, 인쇄성, 산소차단성이 우수한 소재로 식품포장 및 다양한 생활용품의 포장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은 전체 필름업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료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용자들의 가격 인상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마땅

[표 2] 나일론 필름의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주)효성화학	2	12,360	7,420	4,94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0,000	2,100	6,5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200	4,200

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수요 감소와 과당 경쟁, 그리고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필름 업계의 채산성 악화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효성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성화학(주)은 국내 나일론 필름 시장 1위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증설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 가고 있다. 2개 라인을 통해 연간 1만 2,360톤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7,420톤, 내수 4,940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동시에 원자재값이 급등해 화학업계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중국 오미크론 봉쇄조치 등의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로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개 생산라인에서 1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 2,100톤, 내수 6,500톤 가량을 시장에 공급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 관계자는 “국제 경쟁 심화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고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지난해 2개 라인에서 총 8,400톤의 나일론 필름을 생산했다. 수출용과 내수용이 각각 4,200톤 정도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코오롱이 국산화에 성공한 나일론 필름은 식품과 의약품 등의 포장재뿐 아니라 섬유, 책 커버, 리튬배터리 셀 파우치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엔 수급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재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PW]